



# 중량물 포장

## Heavy Packaging

이 상 재 / 인테크씨앤에스 대표

포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린 그것에 대해 잘 모르고 포장을 하는 사람이면 다 완벽하게 포장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에 일을 맡기고 그들이 하는 것이 다 옳은 작업이며 특히 내가 선택한 사람이 가장 잘 할 거란 믿음으로 일을 맡기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중량물포장이 회사의 마케팅적인 측면과 각종 부대비용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각 기업은 전혀 인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이 현지에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한 보호 포장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며 또 제품이 형태로만 잘 도착이 되어도 잘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현실이다.

국내의 제품이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은 포장에 의해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결과도 생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포장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단순 포장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기지만 통상적으로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의 변화를 운송 중 또는 단순 제품의 변화로 생각하며 이런 일이 포장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서는 소비재의 포장이 아닌 기업과 기업간의 포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도 모르며 각각의 포장기법 또한 잘 모르는 현실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나 자사의 생산 또는 건설 등의 장소에 제품을 보내는 것도 그 모든 사정과 최적의 조건이 같이 해야 하지만 현재 각 회사에는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전혀 없어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수출 산업은 늘 성장을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마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뛰어나거나 내부적인 문제로 덮어버리는 것으로 경영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어느 회사의 제품이 운송 중 전복이

되어버린 사건이 있어 그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요즘 목재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국내에서 재재를 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포장회사는 원가경쟁을 하기 위해 수입 제재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은 목재가 썩어서(곰팡이 또는 벌레에 의한 목재의 섬유질이 파손된 상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를 포장을 하는 작업자 대다수도 모르는 현실 속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재를 다루는 작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자재가 썩었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데 더더욱 발주 업체의 담당자가 알 수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는 얼마나 있는가는 각 회사가 내부적 비밀로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몇건의 사고들은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또 제품을 어떻게 상자의 바닥에 올려놓느냐가 상자 전체의 강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에 작업에 편의만을 생각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는 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제품의 전복사고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대표적 사건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다루긴 힘들고 대략적으로 사고의 문제를 잡고 판단을 해 본다면 내용인즉 목재는 누가 봐도 깨끗하기에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 결함을 보유한 자재였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썩어서(곰팡이 또는 벌레에 의한 목재의 섬유질이 파손된 상태) 사용이 불가능한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제품을 올려놓는

작업에 자재를 적게 사용하기위해 중량물 포장에 있어 가장 기본인 집중하중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하중을 유지한 상태로 포장의 위험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다.

또 제품을 고박하는 방법도 상부에 파손위험이 있다하여 하단에만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밴드를 사용 운송 중에 밴드의 탄성에 의해 집중하중 부위의 목재가 파손되는 사건으로 현재 당사자 간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포장회사가 많이 각성하고 기술력을 키워야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중량물 포장을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형태의 문제가 제품에 영향을 주고 이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기본이지만 포장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업체나 전문적이 분야에서 포장의 최종적인 것을 파렛트에 기준을 잡아가지만 중량물 포장에서는 파렛트는 가장 기본적이며 단순한 형태의 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렛트를 이야기 하며 중량물포장 전체의 전문성이 퇴화 되어가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중량물 포장은 모든 제품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토대로 그 특성을 파악 포장 설계를 하여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포장 제품에 대한 지식도 없이 단순하게 포장 설계를 함으로서 포장을 통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며 최적의 포장 물류비 전체에 미치는 절감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는 아는 지인이 있기에 아닌 꼭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로 포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